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黃壽永

1、

鐵佛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鐵材鑄成의 佛像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新羅末부터 高麗初에 걸쳐서 한때 流行하였고 오늘날은 대략 九〇一〇세기의 作品이 國內寺院이나 또는 寺址에서 옮겨 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다. 또 우리 鐵佛은 첫째 大作으로서 主尊으로 造成되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尺未滿의 小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둘째로는 現存作品이 모두 如來坐像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立像의 傳來는 없으며 如來 以外の 作品을 찾을 수가 없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서의 鐵佛造成이 時代的으로 또 種別面에서 매우 制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밝히려 九〇一〇세기에 있어서 鐵佛造成의 背景은 따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우리의 鐵佛을 오늘의 知見에서 新羅에 있어서는 慶州에서 流行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地方에서 造成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九세기에 이르러 佛敎傳播에 따르는 地方寺院의 建立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소위 禪門九山이라 일컫는 九세기 寺院에서 그 主尊佛로서 鐵像이 鑄成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 創建祖師의 中國留學이나 그들을 後援하였던 京鄕勢力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 신라의 對中國貿易 등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가지 問題에 대하여

서는 앞으로 더욱 研究되어야 하므로 이곳에서는 그 이상 論議를 보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鐵佛의 流行은 新羅下代인 九世紀에 들어섬과 동시에 本格化됨을 알 수가 있다. 분명히 羅末·麗初의 鐵佛 流行은 우리 彫刻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材料上의 轉換이며 연구과제의 하나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本稿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現存鐵佛을 中心으로 하여 그밖의 關係知見을 모아 新羅鐵佛의 概況과 그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新羅鐵佛의 概況을 살피기에 앞서 한가지 떠올리는 문제가 있다. 즉 鐵佛을 바라보는 既往의 視角이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年代推定 問題가 제일 두드러진 현상인데 빨리 해결되어야 할 課題이기도 하다.

물론 그와 같은 배경에는 鐵佛造像例의 現存作이 매우 드물다는 점 특히 制作年代가 확실한 작품이 더욱 희소하다는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올바른 鐵佛연구를 위해서는 좀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일례로 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의 廣州鐵造如來坐像(높이 二八八cm, 寶物 三三二號)을 들 수가 있다. 이 불상은 일찍이 日政초부터 新羅佛로 통용되어 오던 작품이다. 아마도 日帝時代 한 日人學者의 見解에 따라 별다른 異議없이 그와같이 年代觀이 굳어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廣州鐵佛의 경우 筆者가 六·二五 직후 原所在地였던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下司倉里의 現地調査를 실시한 결과 이는 統一新羅佛像 樣式을 띄고 있는 있으나 분명한 高麗初의 作品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 까닭은 寺址인 現地마을에 散在되어 있는 石造臺座 破片 등 諸般資料에서 新羅가 아닌 高麗(一〇〇一—一〇一〇)初로 밝혀진 大作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 大佛의 基本資料에의 注目없이 우리는 그사이 外人의 發說을 그

대로 따랐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 가지의 例로서는 年前 美國 각 주요 도시에서 있었던 韓國美術五、〇〇〇年展에 出品되었던 이른바 新羅鐵佛이라는 것이 있다. 사실이 작품이 五、〇〇〇년전에 출품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한 美術史家의 강력한 見解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日人에 의한 新羅의 鐵佛이 八세기라는 年代設定을 존중하여 美國展은 물론 歸國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新羅 八세기작으로 表記되고 있다. 하지만 美國展 出品作 選定 당시엔 筆者가 제출한 이 作品의 說明文에도 지적했듯이 이는 도저히 新羅中期 八세기까지 年代를 上向할 수가 없는 分명한 高麗 初期作으로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②

이 鐵佛은 원래 忠南 瑞山郡 雲山面 所在 普願寺址에서 日帝初에 오늘의 國立博物館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박물관의 遺物카드에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筆者는 수차에 걸쳐 문제의 鐵佛이 반출되었다는 當寺址를 조사한 결과 普願寺에 傳來되고 있는 모든 石造物 등의 造形品이 麗初 이상을 오를 수 없다는 結論을 얻었다. 따라서 이 鐵佛 역시 前代의 樣式을 충실하게 따르고는 있지만 그 制作年代는 普願寺 重創(初創)은 百濟時代로 推定)과 시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었다. 이점 사실은 同 鐵佛이 정확하게 普願寺址 佛像이라는 當國의 기록 역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의 심스러운 바 없지도 않다. 그렇지만 이 像의 경우 그가 지니는 新羅양식을 그대로 年代로 결부하기 보다는 麗初의 復古的 前代양식의 계승을 많이 지닌 作品으로 推定코자하는 것이다.

사실 이와같은 문제는 그밖에도 數例가 더 있다. 그만큼 鐵佛에 대한 綜合的인 우리의 연구가 그사이 부족했다는 하나의 反證이기도 하다.

3、

新羅鐵佛로 믿어지는 확실한 예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어떤 目錄에 ③의 하면 韓國鐵佛의 遺例로 모두 三六軀 정도를 들었지만 그 가

운데 新羅佛로는 六、七例를 넘지 못했음을 보게 한다. 그만큼 現存 新羅鐵佛의 稀少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확실한 연구가 없는 예까지 新羅로 歸屬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筆者는 樣式 등 제반자료상 분명한 新羅鐵佛로 믿어지는 遺例를 다음과 같이 들고자 한다.

- ① 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大中 一二年(A.D. 八五八)
- ② 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咸通 六年(A.D. 八六五)
- ③ 實相寺鐵造如來坐像·九世紀初
- ④ 寒天寺鐵造如來坐像·九世紀初

이와같은 작품들은 新羅 九世紀의 作으로 확실한 예라 하겠다. 특히 寶林寺와 到彼岸寺의 경우는 在銘鐵佛이기 때문에 絕對年代를 갖고 있어 樣式이라는가 연대등을 살피는데 훌륭한 基準作이라 하겠다. 특히 新例인 慶北 醴泉 寒天寺鐵佛과 같은 작품도 있어 새삼 앞으로의 注目을 요하고 있다.

반면 現存하지 않는 亡失例도 있다. 이들은 특히 最近世에까지 해당 寺院에서 전래되고 있다가 불행하게도 파괴를 당한 예들이다. 즉 保寧 聖住寺址本尊鐵佛과 開慶 鳳岩寺本尊鐵佛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기왕에 新羅鐵佛로 알려져왔던 光州 證心寺鐵佛과 靑陽 長谷寺鐵佛은 그 樣式上 麗初作으로 믿어져 本稿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그러면 이와같은 新羅鐵佛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① 寶林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

(높이 二五〇cm、國寶 一一七號)

全南 長興 寶林寺 所在의 이 鐵佛은 무엇보다 左腕後部에 造像에 관한 陽刻銘文이 있어 특히 주목 되고 있다. 그 造像記는 모두 八行인데 一行이 대략 一〇字로서 字徑 三cm의 유려한 楷書이다. ④

當成弗時釋迦如來入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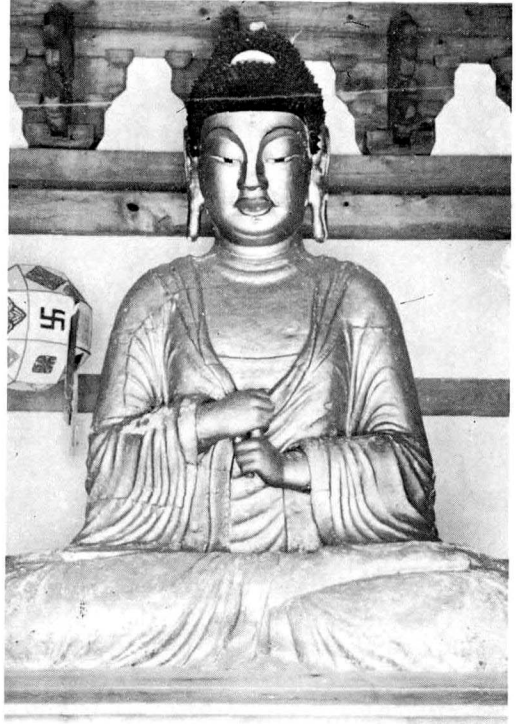


圖 1. 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坐像

後一千八百八年耳此時
情王即位第三年也

大中十二年戊寅七月十
七日武州長沙副官金邃

宗聞奏 情王 〃 八月

廿二日勅下令 〇 躬作不

覺勞困也

이와 같은 銘文은 이 鐵佛 鑄造가 大中一二年이라는 絶對年代를 明示하고 있다. 大中은 唐 宣宗 年號로서 그 一二年 戊寅은 新羅 憲安王 二年 (A.D. 八五八)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서 情王即位第三年也라 한 것은 三國史記 年表로 볼 때 誤記인 듯하다. ⑤ 또한 情王이라고 表記한 것은 분명히 憲安王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⑥ 즉 憲安王의 諱가 諱靖 또는 祐靖이었으며 생략하여 靖王이라 불렀다. 따라서 靖王은 情王과

同音인 관계로 같은 말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것도 武州長沙의 副官 金遂宗의 發願에 의해 조성된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副官이란 것은 新羅官制上 明確하지는 않으나 縣令의 補佐인 듯하다. ⑦

이러한 造像記에 대하여 同寺에 現存되고 있는 憲康王一〇年 (A.D. 八八四) 建立한 普照禪師影聖塔碑 文中에도 언급되어 立證하고 있다.

「宣帝十四年仲春 副守金彥卿夙陳弟子之禮 嘗爲入室之資 減淸俸出私財 市鐵二千五百斤 鑄盧舍那佛一軀 以莊禪師所 居梵宇」⑧

이로서 보면 造像記에 보이는 副官 金遂宗은 副守 金彥卿이라고 改名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年代 表記에 있어서도 相違點이 보이지 ㅅ만 어쨌든 發願者는 私財를 털어 二千五百斤이라는 鐵로서 莊禪師를 위해 毘盧舍那佛 一軀를 헌납했음을 알게 한다. 여기서 莊禪師라 함은 禪門의 迦智山派를 創始한 普照禪師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禪僧이었던 普照住利에 毘盧舍那佛을 施納했다는 사실은 합당한 일이라 하겠다.

寶林寺鐵佛의 樣式上 특징은 무엇보다 大作(二·五m)이어서인지 密度 質은 짜임새는 보이지 않지만 端正한 姿態를 지니고 있다. 相好는 수차례의 火災를 입어 손상이 보이지만 가름한 얼굴 모습에 필요 이상으로 강조된 耳目口鼻나 人中 등에서 當당한 量感을 잃게 하고 있다. 무에는 三道가 있으나 通肩의 法衣로서 衣文은 다소 硬直된 감이 없지 않다. 手印은 智券印을 結하고 있어 毘盧舍那佛임을 밝히고 있다.

② 到彼岸寺鐵造毘盧舍那佛坐像

(높이 卞상 一〇三cm, 臺座 九〇cm, 國寶 六三號)

江原道 鐵原郡 東松面 觀雨里 到彼岸寺 所在의 本尊 鐵佛은 앞의 寶林寺 鐵佛과 함께 造像銘을 지니고 있는 매우 귀중한 新羅鐵佛이다. 佛像 背面的 銘文은 약 四〇cm 가량의 길이에 八行으로 每行 약 二〇字 정도가 陽刻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

香徒佛銘文 并序



圖 2. 到彼岸寺 鐵造毘盧舍那佛坐像

夫釋迦佛晦影歸眞遷儀越世紀世掩色不鏡三千光□一千八百載可慨斯佐斯彫此金容□
 □來哲曰立願之唯願卑姓□遂榮□自投□□□
 覺長昏換□鄙志契眞源恕以色莫朴□見

唐天子咸通六年乙酉正月日新羅國漢州北界

鐵員郡到彼岸寺成佛之信士□龍岳堅清于時□

覓居士結緣一千五百餘人堅金石志勤不覺勞困

이 鐵佛은 題記부터 香徒佛이라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信者들의 모임을 지칭한 文句이다. ⑩ 이렇듯 信仰團體로 結緣한 香徒一千五百餘人이 咸通六年乙酉正月에 金容像을 彫成한다고 했다. 여기서 咸通六年이란 年號는 新羅 景文王 五年(A.D. 八六五)에 가리키는 것이며 당시의 鐵原은 新羅國漢州北界가 되는 鐵員이라 表記되고 있다. 銘文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역시 香徒願成이다. 대부분의 佛像造成時

發願者는 單獨이거나 또는 極少數만이 참여하고 있음이 보통인데 到彼岸寺의 경우는 무릇 일반 信者들이 뜻을 모아一千五百여명이라는多數가 參集했다는데 커다란 특성이 있다 하겠다. 그것도 名門巨族이 아닌 無名의 일반 信徒들이란 점에서 당시 信仰內實의一端을 보는 듯하다. 到彼岸寺鐵佛의 樣式上特色은 우선 다른 鐵佛과는 달리 鐵製의 蓮華臺座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光背의 樣相은 알 수 없지만 이렇듯 本尊佛과 더불어 同一材質의 臺座까지 完存된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蓮華臺座 역시 八角形으로 上臺는 二重의 單瓣仰蓮이 있으며 中臺는 八角隅柱로 연결되었다. 下臺는 八葉의 역시 單瓣 伏蓮이 조각되어 있는데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는 귀꽃이와 함께 安定感을 지닌 外形을 보이고 있다.

相好는 약간 여윈듯한 민첩한 신을 유지하면서 各部位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端正한 자세에서 智券印을 보이고 있지만 衣褶 등의 陽刻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는 寶林寺鐵佛과 對照가 되는 彫刻技法으로서 結跏趺坐한 下體 역시 거의 平板인듯 얇게 새겼으나 전반적인 인상은 매우 安定感을 띄고 있어 新羅鐵佛 樣式의 한 典型이라 하겠다.

③ 實相寺鐵造如來坐像

(높이 二六九cm, 寶物 四一號)

全北 南原郡 山內面 立石里의 智異山 北麓에 있는 實相寺는 迦智山 寶林寺와 더불어 禪門九山의 하나이다. 洪陟禪師에 의해 開山된 實相寺는 今日에도 三層石塔 二基 등 伽藍의 威容을 자랑하고 있다.

이 곳 藥光殿에는 鐵造如來坐像이 있다. 앞의 寶林寺나 到彼岸寺의 예와 같이 銘文을 갖고 있지 않아 확실한 造成年代는 알 수 없지만 實相寺鐵佛이 지니고 있는 價値는 결코 뒤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現存 鐵佛 가운데 가장 古式을 띄고 있는 것으로서 최소한도 九世紀初葉인 興德王代까지 이를 初期作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圖 3. 實相寺 鐵造如來坐像

즉 이 鐵佛은 唐의 西堂智藏 門下에서 修學하고 興德王 元년에 歸國하여 智異山에서 일대 禪風을 일으키기 시작한 洪陟禪師의 實相寺 開創과 年代를 같이하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實相寺의 開創(시. D. 八二八)은 곧 後來하게 될 禪門九山の 創始를 이루는 선구적인 존재가 된다.

어떻든 자세한 관계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본 鐵佛은 당한 자세와 풍만한 相好 등에서 新羅 中代의 彫刻技法을 강하게 이어받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겠다. 현재 光背와 臺座는 물론 두 손마저 결실된 後補되어 있다. 右手는 들어 施無畏印을 보이고 있으나 左手는 왼쪽 무릎 위에 없었거나 혹은 藥盆을 지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鐵佛을 일컬어 藥師如來坐像이라고도 불리운다. 어떻게 이와 같은 造像에 대하여 新羅末期의 混濁한 세상에 대처 國王一家의 發願에 의해 洪陟禪師는 邦家安泰와 衆生濟度를 誓願하여 만든 것이라고도 보았다. ⑪



圖 4. 寒天寺 鐵造如來坐像

전체적으로 풍만한 얼굴모습과 더불어 유연하게 흘러내린 가슴과 그 옷주름 등에서 莊嚴하면서도 豪放한 느낌을 갖게 한다. 肉髻를 포함머리부분이 비교적 강조된 편이다. 그러면서도 厚朴한 眉間部位와 더불어 커다란 귀에 비하여 작은 입이 대조되는 독특한 安定感을 띄고 있다. 이러한 彫法은 通肩의 法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반복적인 衣褶의 경쾌한 흐름을 지니고 있다.

④ 寒天寺 鐵造如來坐像

(높이 一四七cm, 寶物 六六七號)

慶北 醴泉郡 甘泉面 曾巨洞 寒天寺의 鐵造如來坐像이 學界에 알려지기는 最近의 일이다. 지난 八〇年 八月 指定文化財(寶物)로 확정되면서 그 존재가 새삼 두드러졌던 것이다. 同 指定審議時의 記錄에 「統一新羅의 鐵佛이 구비할 造形上의 諸特徵을 지니고 있으며 이 時代의 佛敎造形美術의 한 代表的인 作品」으로 믿어졌던 바 있다.

현재 兩手는 缺失되어 정확한 手印은 알 수 없으나 後補時 藥鉢을 지닌 藥師佛로 名號를 지니게 되어 同寺의 瑠璃光殿에 奉安되고 있다. 비록 手印을 잃고 약간의 頭頂部에 破損을 입고는 있으나 이 鐵佛의 現存 狀態는 良好한 편이다.

원만한 相好와 뚜렷한 三道에 右肩偏袒의 衣褶은 다소 樣式化된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安定感을 띤 좌세와 均衡있는 比例는 이 佛像의 優秀性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러한 知見을 바탕으로 하여 九世紀 新羅鐵佛의 新例로 앞으로 다시 注目을 받아야 하겠다.

⑤ 聖住寺鐵造如來坐像

忠南 保寧郡 帽山面 聖住里에 있는 禪門九山の 하나였던 無梁國師에 의한 聖住寺가 있다. 百濟時에는 烏舍寺(또는 烏會寺)였으나 新羅下代에 이르러 聖住山派의 開山과 더불어 寺名을 聖住寺로 改稱했다. ⑫ 즉 新羅 文聖王代에 唐에서 歸國한 朗慧和尚이 同寺를 重創했으며 당시 金立之事蹟碑가 건립되었고 崔致遠의 四山碑 가운데 하나인 聖住寺朗慧和尚 白月椶光塔碑가 傳來되고 있다. 聖住寺의 廢寺址는 지난 一九七四年 東國大博物館에 의해 發掘調査된 바가 있다. ⑬

그 당시 寺址에서 三千佛殿 등 建物址를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寺域의 중심부분에서 金堂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주목되어진 것은 다소 손상은 입었으나 方形佛臺座였다. 覆蓮部가 四片으로 조개진 下臺좌에는 없었지만 그런데로 原形을 잃지 않고 있었다. 長方形의 最頂部 아래에는 羅末부터 유행을 본 蓮華文 浮彫를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 佛臺座에 奉安되었던 佛像이 닮아난 鐵佛이었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이 本尊鑄像은 韓日合邦 무렵 日人에 의해 鴻山方面으로 반출되어 破壞되었다고 전한다. 현지의 古老들에 의하면 「부처님 무릎 위에 올라서면 겨우 귀를 만질 수 있었다」고 할 만큼의 大佛이었다. 아마 「崇巖山聖住寺事蹟」에 전하는 「毘盧遮那佛一大尊像」이 바로 本鑄

像을 일컫는 듯하다. 이 점은 同寺址에서 收拾된 金立之撰碑片(國立扶餘博物館藏)에 「租稻充入鑄像工價」라는 遺文 역시 鑄像造成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⑭

분명히 聖住寺鐵佛은 文聖大王의 願佛로 造成한 毘盧舍那佛이었을 것이다. ⑮

⑥ 鳳巖寺鐵造如來坐像

慶北 聞慶郡 加恩面 院北里의 鳳巖寺 역시 禪門九山の 하나로 道憲禪師開祖의 曦陽山門의 가람이었다. 현재 寺勢는 몹시 기울어 있으나 智證大師碑銘에 의하면 新羅 憲康王代 沈忠의 請에 의해 智證大師가 堂宇를 建立하고 鐵佛像二軀를 鑄造했다 한다.

현재 寺址에는 三層石塔을 비롯 智證大師碑와 寂照塔、石造靜眞大師塔碑와 同塔 그리고 磨崖如來坐像 등 石造物이 있다. 그밖에 鳳凰門과 極樂殿 등 木造建築物도 있다.

그런데 문제의 鳳巖寺鐵佛은 현재 亡失되어 그 存在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극히 최근(六·二五후)에 그 이전부터 假屋안에서 겨우 傳來하여 오던 이 破像이 다시 破損되어 마침내 그 殘片이 埋沒되었다고 전한다. 그 鐵佛의 한 破片(귀 부분)이 東國大博物館에 移管되어 있다. 多幸하게도 이 佛像의 關係知見을 열람할 수가 있어 이곳에 紹介하고자 한다. 이 調査報告는 一九三五年 總督府의 學務局長에게 提出한 鳳巖寺調査에 따른 復命書이다. ⑯ 調査者 樞本龜次郎는 同年 八月에 現地에 도착하여 세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鐵造如來座像一軀」라는 項目이 있어 轉載하고자 한다.

「像은 前記와 같이 石塔의 正北 金色殿址內에 있다. 螺髮 白毫를 잃고 雙手前膊部를 잃었으며 膝背部 등에 損傷이 심하고 佛體의 倒壞를 防止하기 위하여 內部에 支木을 마련하는 등 이체는 거의 往古의 姿態를 살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나 다행히 遺存하고 있는 面貌 衣文의 일부



圖 5. 鳳巖寺 鐵佛坐像(亡失)



圖 6. 鳳巖寺 鐵佛坐像 部分

에 의하여 이像의 樣式이 新羅樣式의 하나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像은 偏袒右肩에 法衣를 입고 右足 위에 結跏趺座한 丈六 如來大像인데 혹은 원래 釋迦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面貌 衣文의 表現, 佛體의 正當한 均整 등 뛰어난 像으로 볼만하다. 臺座는 花崗岩一石으로서 조성된 것이나 지금 蓮瓣 거의 전부를 잃고 當初의 형태를 밝히기가 어렵다. 또 그 臺座를 볼 때 重蓮華(仰·反)座이었던 듯하나 오늘날은 下部가 매몰되어서 볼 수가 없다. 像의 法量은 이같은 狀態이므로 말할 것도 없이 計測할 수가 없다. 다만 丈六의 座像으로서 造立된 事實을 알 수 있을 뿐이다.

造立年代는 像 自體에 年號銘記가 없으므로 알 길이 없으나 塔과 같이 智證大師碑銘에 의하여 대략 新羅 憲康王 七年 前後로 보아도 大過 없을 것 같다. 혹은 碑銘에 보이는 「鑄鐵像二軀云云」의 하나에 해당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附記〕(報告書에 따름)

「既述과 같이 이 像의 假屋 東西에 直接하여 遺存하는 花崗岩一石의 蓮華臺座는 東에서 九五·四cm, 西에서 九〇·九cm 이어서 의심 없이 殘存 如來像의 脇侍 蓮華臺座로 보이나 이것 또한 蓮瓣을 缺如하여 原形을 알기 어렵다. 二基같이 本尊의 臺座(中心)에서 약 二·五cm의 위치에 있다.」

위와 같은 總督府의 復命書에 의하면 분명 新羅鐵佛 樣式을 지닌 佛像임에 틀림없다. 同書에 첨부된 鐵佛寫眞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當당한 體軀와 더불어 풍만한 量感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한다. 相好는 매우 풍만하며 衣文 彫法 또한 시대의 特色을 지니고 있다. 다만 鳳巖寺舊寺址 配置圖에도 보이듯이 五層石塔 뒤의 金堂址의 중앙에 臺座를 三個所에 表示하고 있으나 다만 架構物은 中央 本尊佛에만 鐵造佛假屋이라 하여 구획되어 있을 뿐이었다. 원래는 三尊佛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우수한 新羅鐵佛大作이 그동안 그런대로 奉安되어

오다가 六·二五 후에 이르러 그만 잃게 된 점은 무엇보다 哀惜하다. 이곳에 당시의 鮮明하지 못한 사진과 기록이나마 옮기는 바이다(報告書는 國立博物館에 있다)

4.

新羅鐵佛의 본격적인 대두는 九世紀를 중심으로한 新羅下代였다. 당시의 여지껏의 支配階層이었던 王權의 弱化現象과 더불어 地方勢力이 크게 강화되던 시기였다. 즉 政治社會的으로 新羅下代는 絶對王權의 瓦解過程과 더불어 그만큼 地方豪族이 등장케 되었다.

이와같은 새로운 秩序는 宗教上으로도 敎學 中心의 佛敎界에서 서서히 禪宗이라는 새시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는 禪門九山の 隆盛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豪族 등 地方勢力의 得勢와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게 한다. 때문인지 여지껏의 신라의 寺院建築은 그 性格을 달리하여 각 地方으로 擴散敎建되면서 전국적으로 廣域化되었다. 그것도 山地伽藍의 形態로서 자리잡게 되었으니 이는 禪宗의 대두에 기인한 까닭으로 역시 禪門九山の 開創은 이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新羅鐵佛의 流行은 이와같은 社會的 혹은 敎理的인 배경에서 우리 불상 조각사위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羅末 禪宗의 대두와 더불어 鐵佛樣式의 유행이 그 時代를 같이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鐵佛 가운데서도 특히 注目되는 것으로 寶林寺 實相寺 聖住寺 鳳巖寺는 모두 禪門九山の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鐵佛의 樣式上 特徵은 무엇보다 寺院의 主尊佛로 奉安되었는데 그것도 大作으로서의 如來坐像이었다. 이는 鑄物工法 등 彫刻技術의 發達에 힘입은 바도 있겠지만 당시 新羅社會에서의 鐵佛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一端을 짐작케 한다 하겠다. 특히 鐵佛의 名號가 대개 毘盧舍那佛이었음도 注目하게 한다. 佛像彫刻 가운데서도 굳이 毘盧舍那佛을 造成한 것은 당시의 信仰內實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材料上으로 鐵佛의 유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왕의 金銅佛이나 石佛 등의 빈번한 造像流行에서 벗어나 鑄鐵如來坐像의 대두는 분명히 古代 韓國彫刻史에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鐵佛制作의 理由에 대한 것 가운데 中國鐵佛의 影響을 고려에 넣어야 하겠다. 또 신라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때 찬란한 金銅佛이 융성했다면 不立文字 敎外別傳을 지향하는 禪宗의 입장에서 보는 보다 質朴한 느낌을 갖게 하는 鐵佛의 관심이 또한 造像에까지 영향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新羅鐵佛은 時代相의 한 반영으로서 九세기에서 一〇세기에 걸쳐 신라·고려 兩代에서 造形化된 독특한 作品들이라 하겠다.

〈註〉

(1982, 8, 20)

- ① 關野貞,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一九三二. p. 一三〇
- ② 「韓國美術 五, 〇〇〇年展 圖錄」, 國立中央博物館.
- ③ 佐藤昭夫, 「日本の鐵佛」小學館, p. 一〇五~一〇七
- ④ 「朝鮮金石總覽」補遺四 朝鮮總督府. 黃壽永·增補韓國金石遺文一志社刊
- ⑤ 中吉功, 造像銘のある新羅の鐵佛二種「新羅高麗の佛像」二玄社 一九七一, p. 二八七
- ⑥ 葛城未治, 寶林寺毗盧舍那佛について, 「朝鮮金石攷」
- ⑦ 藤田亮策, 朝鮮金石瑣談三, 「靑邱學叢」一九號.
- ⑧ 「朝鮮金石總覽」上卷 三一
- ⑨ 註⑧ 同一, 上卷 二八
- ⑩ 今西龍, 到彼岸寺佛像調査記, 「新羅史研究」
- ⑪ 中吉功, 實相寺鐵造藥師如來像小論, 前掲書, p. 三一〇
- ⑫ 拙稿, 新羅聖住寺의 沿革, 「佛敎美術」二輯, 東國大博物館. 一九七四
- ⑬ 聖住寺址發掘調査特輯, 「佛敎美術」二輯
- ⑭ 拙稿, 新羅金立之撰 聖住寺碑, 「韓國의 佛敎美術」同和出版社. 一九七四, p. 二六二
- ⑮ 「崇巖山聖住寺事蹟」, 「韓國의 佛敎美術」所收
- ⑯ 榎本龜次郎, 「鳳巖寺調査復命書(筆寫本)」朝鮮總督府 一九三五. (體裁四×六培版. 總 四七面) 現 國立中央博物館所藏